

AI시대 사랑과 이별은 어떻게 변할까?

‘시산맥’ 대표 문정영시인 시집 ‘두 번째 농담’ 펴내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세련된 감성으로 형상화

“4차 5차 산업혁명에 우리는 AI와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 그때에 사랑, 이별, 고통은 어떻게 변할까? 다음 여행은 지구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것들이다.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계간 ‘시산맥’ 대표인 문정영(사진) 시인은 AI 시대에도 시의 진정성을 믿는다. 비록 그의 시적 화법은 농담처럼 가벼운 느낌이지만, 이면에 드리워진 의미는 묵직하면서도 깊다.

시산맥시인선 기획으로 발간된 문 시인의 여섯 번째 시집 ‘두 번째 농담’ (시산맥)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독자들에게 건네는 다정한 서신이다. 지난 2018년 ‘꽃들의 이별법’ 이후 3년 만에 펴낸 창작집은 언택트 시대인 오늘의 양상을 예리하면서도 부드럽게 축수로 감지한다. 시집 제목에 열핏 가벼워 보이는 시어인 ‘농담’

을 내걸었지만, 전반적인 작품의 주조는 쓸쓸하면서도 아련하다. 김은우 시인이 “어떤 농담은 울음대신 꺼낸 두 번째 고백이야”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세계와의 불화로 다양한 이별의 고통에 직면한 화자의 삶일지언정, 아니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삶일지언정 “성찰과 깊은 사유, 다양한 시적 대상을 통해 익숙한 일상 속에서 낯선 시선으로 사물을 응시하는” 그의 감성은 잔잔한 위로와 여운을 준다.

“고백은 느린 랩 같았어/ 두 번째 농담이 있기까지/ 낯선 너의 웃음을 견디지 못하는 포노 사피엔스/ 순간 뜨거운 공기 속으로 슬픔이 길어 올려졌고/ 상승과 몰락이 씻은 무처럼 하얗어/ 이제 말꼬리를 올려야지, 농담이 아닌 듯이/ 언제쯤 입술 주변에 공기가 말랑해질까/ 다른 표정 보이기 위해 얼굴을 감추었다 생각했는데/ 한 번의 농담은 농담이 아니었어...”

표제작 ‘두 번째 농담’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그림에도 감성



과 서정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강대선 시인의 말대로 “새로운 서정의 새벽을 부르는 울음이자 한밤 추위를 견디게 하는 온기”다.

표제작 외에 ‘넷플릭스’, ‘포스트 코로나’, ‘답페이크 연애’, ‘안드로이드 사랑’, ‘3D 프린트’, ‘그

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안드로이드 사랑’과 같은 작품도 눈에 띈다. 디지털 유목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증후를 날카롭게 포착하면서도 꿈, 사랑, 이별, 생명 등 가장 본질적인 주제를 세련된 감성으로 그려낸다.

이재연 시인은 “공공 숨겨져 있는,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진짜 얼굴을 찾기 위해 이 시집 속의 감성과 언어들을 찬찬히 따라갈 뿐 일”이라고 평한다.

아울러 이혜미 시인은 “그가 노래하는 자연과 세계의 풍경을 듣다 보면 종종거리던 마음이 어느덧 고요하고 가시려해진다”고 부연한다.

이번 작품집은 시집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설 대신 시산맥 회원들의 추천글을 다수 게재 눈길을 끈다.

문학평론가 김필영·이송화·최연수 시인을 비롯해 서영택·안차애·김통·마경덕·오늘·김미희·신지혜·한혜영·정국희·강주·이령 시인 등의 추천 글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장흥 출신인 문정영 시인은 지난 97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했다. 아울러 광주일보와 함께 운영하는 동주문학상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집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인크’, ‘그만큼’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31일까지 문화누리 카드 이용자 이벤트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31일까지 광주 문화누리 카드 이용자를 위한 ‘슬기로운 문화누리 생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유형은 전국 온·오프라인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3만 원 이상’ 결제하고, 인증하면 파리바게뜨 5000원권을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지급한다.

두 번째 유형은 문화누리카드 ‘10만 원’ 잔액 소진 후 ‘잔액 0원’을 인증하면 BHC치킨 교환권을 선착순 20명에게 지급한다.

중복참여는 할 수 없으며 유형별 ‘결제내역 증빙’과 ‘한 줄 후기’를 작성해야 한다.

희망자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광주문화누리 블로그에 게시된 네이버 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월 6일 당첨자에게 개별 문자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일환인 문화장터 ‘누리랑’에 참여할 가맹점을 16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70-7444/744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찾아가는 ‘꼭지 손 국악’

전남도립국악단, 20개 초·중 대상 국악동요·죽방울 놀이 등 공연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이 오는 12월까지 전남 지역 내 초·중학교(총 20개교)를 대상으로 2021 움직임은 가무악타 ‘꼭지 손 국악’을 공연한다.

‘꼭지 손 국악’은 전남도립국악단과 전남도교육청의 협력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내 초·중학교를 찾아가 국악 공연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시간이다. 학생들의 눈 높이에 맞춘 판소리와 국악동요,

전통무용, 타악 앙상블 등을 선보이며, 강강술래 춤과 배나, 죽방울 놀이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무용과 연희를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지난 1일 구례 중동초교 공연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성 북내중, 장성 백암중, 영암 구림중, 신안 임자초 등에서 예정되었다.

류형선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술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국악과의 꼭지 손을 통해 우리 음악과 한층 더 친숙해지고, 나아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61-980-996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도립국악단이 오는 12월까지 전남 지역 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1 움직임은 가무악타 ‘꼭지 손 국악’을 선보인다.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백련재 문학의 집’

23일까지 입주작가 모집

‘백련재 문학의 집’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29-29)에서 제4기 입주작가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입주작가 모집은 안정적인 집필 환경을 지원해 창작 의욕을 높이고 문인 간 교류를 통해 지역문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기획됐다.

모집 분야는 시(시조), 소설, 수필, 희곡, 아동 및 청소년, 번역, 평론이며 모집 인원은 총 5명이다.

먼저 5개월 입주(8월 10일-12월 31일)는 3명을 모집하며 2개월 입주(2022년 1월 4일-2월 25일)는 2명이다.

신청자격은 기성작가의 경우 신춘문예나 문학전문지 등을 통해 등단한 지 3년 이상 된 문인으로 10년 이내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어야 하며 예비 작가는 작품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단작가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기성작가는 지원신청서, 예비작가는 지원신청서와 추천서를 담당자 이메일(lee181020@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4기 입주작가들에게는 작가 소개 및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참조(http://gosan.haenam.go.kr), 문의 061-530-513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성평등한 AI 정책 방안 등 모색

광주여성가족재단 창립 10주년 오늘 광주여성가족정책 포럼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하 재단)은 재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제17차 광주여성가

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13일 오후 1-6시 재단 3층 북카페 은새암.

1-2부로 나누어 열리는 이번 포럼은 2011년 재단 창립 이후 10년간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실행, 성 평등 도시 실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

다.

첫 번째 포럼은 ‘재단 10년, 지역여성 일과 생활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및 일·생활 균형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 사회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한다.

포럼에는 김영신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성지혜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안숙영 계명대 여성학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두 번째 포럼 주제는 ‘A.I.와 빅데이터 속 젠더 이슈’다.

박현아 이어가다(주) 대표, 심지원 동국대 철학과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학기술 분야 및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젠더 이슈에 대해 다루며, 보다 성평등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정책들을 세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된다. 문의 062-670-052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